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Care Case

1. 일반적 사항

- 1) 성명: 차○○
- 2) 성별: 여
- 3) 나이: 60세
- 4) 학력: 초졸
- 5) 직업: 무직
- 6) 종교: 개신교
- 7) 결혼상태: 사별
- 8) 현주소: 경기 수원
- 9) 주거형태: 빌라, 자택
- 10) 의료보장: 건강보험, 암 보험 있음.
- 11) 진단명: Ovarian ca
- 12) 입원일: 2010.07.19

2. 정보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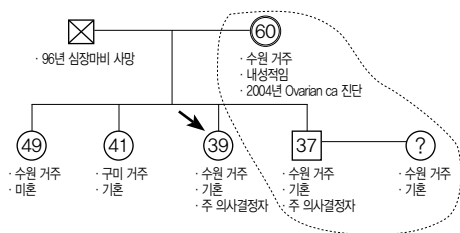
피면접자	성별	나이	학력	직업	면접태도	면접일시
셋째 딸	여	39			협조적	2010.07.19

3. 의뢰경위

상기 60세 여환은 2004년 8월 아주대 병원에서 Ovarian ca 진단 받아 종양제거 수술하였으며 2008년 8월까지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 9회 실시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해 중단하였고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복수, 통증의 증상으로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 병동 입원 권유 받아 의뢰됨.

4. 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

1) 가계도



2) 가족력

- ① 남편(死) : 1996년 심장마비로 사망 함
- ② 첫째 딸(43) : 수원 거주(미혼)
- ③ 둘째 딸(41) : 구미 거주
- ④ 셋째 딸(39) : 수원 거주
 - 주 의사결정자로 장례절차 계획 준비되지 않음
 - 환자 집에서 생활 시 낮에 점심 챙겨 줌
 - 가족들이 직장생활로 환자 24시간 간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유료간병인 사용 예정임.
- ⑤ 첫째 아들(37)
 - 수원거주로 환자와 함께 생활 중임.
 - 주 의사결정자

3) 개인력

- 결혼 후 1남 3녀를 두었으며 남편은 1996년 심장마비로 사망함
- 내성적인 성격임
- 2004년 8월 아주대 병원에서 ovarian ca 진단 받았으며 종양제거 수술함

- 2008년 8월까지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 9회 하였으나 효과 없어 중단함.
- 2010년 4월 경 복수가 차기 시작함.
- 내원 이틀 전부터 통증 호소하여 두 차례 응급실 방문하여 통증 조절함.
- 환자 자신의 진단명과 병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음.
- 가족 중 24시간 간병의 어려움으로 유료 간병인 사용 예정임.
- 장례 절차 계획에 대한 준비 부재함.

사회사업적 사정

1. 심리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근거한 사정

No.	문제 목록	세부내용
1	일차적인 지지집단과의 문제	환자의 자녀들이 직장생활로 환자를 24시간 간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2. 문제 사정 및 개입 계획

(1) 환자 입원 시 자녀들의 24시간 간병의 어려움

문제 사정	- 환자 자녀들이 직장생활 중으로 환자 입원 시 24시간 간병하는데 부담감을 표현하여 환자 간병에 어려움이 발생 될 것으로 사료됨.
개입 계획	⇒ 유료 간병인 서비스 정보 제공 - 환자 입원 시 유료 간병인 서비스 사용 가능함을 정보 제공하여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감을 해소 하도록 지지할 계획임.

(2) 장례절차 계획 부재로 인한 절차수행의 어려움

문제 사정	- 장례절차 수행을 위한 계획이 부재하여 환자 임종 후 절차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입 계획	⇒ 장례절차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 장례절차 필요 물품 및 점검 사항에 대해 정보 제공하여 가족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임종 시 안정적으로 절차수행 할 수 있도록 지지할 계획임.

Hospice Family Meeting

실사일: 2010. 07. 22 (pm3:30 - 4:15)

차○○ : (F/60) Ovarian ca

- 참석가족:** 환자, 둘째 딸, 셋째 딸, 첫째 아들, 셋째 사위 (5명)
- 호스피스 팀원:** Dr. 손덕승, Sr. 아니타, Sr. 파올리나, Nr.황수연, MSW 장지영, ISW 김연미, 간호실습생 2명 (8명)
- 장소:** 호스피스 병동 다목적실
- 상담과정**

MSW 장지영: 오늘 가족 분들이 모이셔서 가족면담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환자분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의 치료계획을 들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치료진 소개

(2) 가족소개

MSW: 셋째 따님께서 가족들 소개와 어머니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셋째 딸: 가족소개 함. 저희 어머니가 올해 8월 1일이 환갑이신데...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셔야하는데 입원을 하셨으니... 걱정이네요...

(3) 의료경과 설명

MSW: 여행계획이 있으신가요? 조금 후에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사진을 보면서 환자분에게 대해 설명을 들겠습니다.

Dr.: 2004년에 아주대 병원에서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발생했던 위치가 어느 쪽이었나요?

둘째 딸: 난소암이고 양쪽에 생겼어요.

Dr.: 그 당시 양쪽에 발생하여 수술을 하였고 수술 시

종양 절제와 자궁적출을 함께 받으셨고 골반 내에 있는 생식기관까지 병 때문에 제거 하셨습니다. 수술하고 바로 항암치료 하셨나요?

아들: 바로 이어서 항암치료 시작했어요.

Dr.: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 받으셨나요?

아들: 아니요. 아주대에서 탁솔로 9차까지 받고 8개월 정도 잘 계시다가 재발해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받으셨어요.

Dr.: 시작된 장기가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당장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고 나서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 항암제를 9차까지 받으셨고 항암 반응이 환자 분과 잘 맞아 8개월 정도 잘 지내시다가 재발하면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2010년 4월 13일에 국립암센터에서 찍은 CT사진과 최근 저희 병원에서 찍은 CT사진을 비교하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흉수가 깔려있고 간에 복수가 차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작은 점이 보이는데 물혹이거나 전이 된 종양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목욕탕에 장시간 있으면 몸이 부풀듯이 장기들도 복수에 잠겨있어 장기들이 멍쳐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면 흉수가 늘어나있고 간에 없었던 혈관이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물혹, 낭종이라고 했던 부분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항암치료를 해서 작아진 것 같고 3-4개월 경과하면서 간에 없었던 부위에 새로운 병변이 생겼습니다. 복수가 늘어나면서 배꼽을 싸고 있는 막에 물이 차고 배가 많이 솟아올랐으며 장은 부풀어 있고 유착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입파선에는 문제가 없고 복수가 늘어나었는데 복수가 늘어난 이유는 원발 장기에서 복막에 전이가 되면서 복수가 차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몸에서는 체액들이 빠져나가면 다시 재흡수하여 체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환자분의 경우 복막에 암세포가 퍼지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작은 출구가 생기면서 체액이 빠져나오고 복막에 있는 암세포가 자

라기 위해 영양분을 소비하면서 환자분의 체력이 떨어지고 알부민도 떨어지게 됩니다. 알부민이 떨어지면 혈관내의 압력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3공간으로 체액이 빠져면서 먹는 것이 다 흘러나옵니다. 복수에 쌓인 체액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있어야 할 공간에 있지 않고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빼내는 것입니다. 복수를 빼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체력소모가 축진되는데 다른 환자분들은 물이 빠진 후의 가벼운 느낌 때문에 반복해서 복수를 빼달라고 하여 관을 삽입해서 지속적으로 복수를 빼면 병원에서 치료진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집에서 관리가 어려워 일주일 만에 살이 많이 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복수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원발 장기가 난소암이고 탁솔 약의 효과가 좋고 6개월 이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기 힘들면 복강 내부로 주사액을 희석하여 복강 내부에 붙이는 것이 있는데 복막에 있는 암세포가 항암제 효과로 복수조절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복수를 조절한 후 지난번 치료 시 명확하게 항암제를 쓴 기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확인 후 항암치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의 상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고 환자 본인이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복수조절이 가능하다면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 분이 가능한 시점을 기다리는 중 시점이 맞지 않고 복수가 계속 차게 된다면 치료계획은 실행하지 않고 호스피스 완화 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주까지 증상 조절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퇴원하셨다가 외래에서 치료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완화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환자분의 몸 상태가 받쳐준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환자분의 몸 상태가 좋지 않는데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가 해가 되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조절은 지뢰밭과 같기 때문에 복수를 빼고 지켜보다가 환자분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걸어 다닐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시간을 소중히 가져야 합니다. 치료계획은 의뢰진에게 맡기고 가족들은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Q&A

첫째 아들: 요즘 말기 암 치료 중에 표적치료제로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사용 안 되나요?

Dr.: 지금 선풍적으로 효과를 얻고 있는 약은 폐암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몇 차례나 해야 하나요?

Dr.: 환자가 항암치료가 가능한 컨디션 일 때 그 상황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딸: 복수를 덜 차게 하는 방법은 있나요?

Dr.: 기본적으로 본인 입으로 먹고 물먹는 것이 복수를 덜 차게 합니다. 영양제, 수액, 다린 물이 복수를 더 차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항암치료가 암을 조절하는 것이고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아들: 혈관으로 항암 치료하는 것 보다 나은 건가요?

Dr.: 복강 내부로 직접 항암제를 보내기 때문에 복수 자체가 배 안쪽에 돌아다니면서 암세포에 직접 반응을 주게 됩니다.

셋째 딸: 위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복수 때문에 그런건가요?

Dr.: 복수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또 복강 내 물이 있어 장기가 떠 있기 때문에 위가 퍼져있는 상황으로 수축을 할 수 없어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수는 증상이 생길 때마다 배 안의 복수 중 5분의 3정도만 빼는데 뺀 자리에 다시 복수가 생길 때 마다 체력 저하를 보이시게 됩니다. 환자분의 컨디션이 잠깐 좋

아진 시점에서 항암치료를 하면 복수조절은 가능하지만 환자분의 체력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환자분의 상황으로 당장 항암치료는 시행 할 수 없습니다.

MSW: 환자분 지금 설명을 들으셨는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의 희망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족보다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퇴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항암치료가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지금은 딱히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MSW : 8월1일이 환자분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 중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Dr.: 다음 주쯤에는 여행도 가능 하십니다.

MSW : 아까 따님도 여행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갑이신데 병원에서 보내시는 것은 억울하실 것 같고 가까운데 가서 여행가시는 것은 어떠세요?

환자: 여행은 가능하죠...

Mr.:식구들이 다 모였으니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시고 가고 싶은 곳도 이야기 해보세요.

환자: 건강 할 때 이야기죠... 멀리 갈 수가 없으니...

MSW : 저희 환자분들도 제부도나 화성으로 다녀오셨어요...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자: 한번 여행가고 싶어요.

MSW : 아드님과 따님이 계획을 한 번 세워보셔야 할 것 같아요.

Mr.: 멀리 가는 것은 보호자들이 부담스러우니 당일로 가까운 곳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 환갑이시니깐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들: 어제 점심 식사를 못하시던데...

환자: 캡슐약을 먹는 데 자꾸 목에 달라붙고 목은 마르네 음식은 못 먹겠어요.

Dr.: 평소 식사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셋째 딸: 집에서 조금씩 드세요.

환자: 배가 불러서 못 먹는데요... 한 숟가락 정도 먹어요.

Dr.: 병원에서는 식사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셋째 딸: 한 숟가락 드세요.

Nr.: 물 대신에 주스, 유동식을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넘어가시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밥 대용으로 유동식 드시는 게 낫을 것 같아요.

Dr.: 일반 사람이 먹는 식사량 기준을 환자분에게 비교하면 안 되고 환자분에게 맞는 식사량과 식사종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황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복수를 빼면 다시 차기 때문에 그 때 암세포가 작용하면서 더 속이 울렁거리면서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환자분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식사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 한 번에 한 캔 정도 먹어요.

Dr.: 한 캔 정도가 밥 한 공기 칼로리로 한 캔 정도 먹으면 젊은 남자들이 먹는 밥의 양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복수도 덜 차게 되고 복수를 빼지 않으니 체력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 악순환을 선순화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SW: 더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둘째 딸: 엄마가 자꾸 눈이 풀리시는데 진통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4시간 마다 한 번씩 맞는다고 하시는데...

Dr.: 주사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Nr.: 내일부터는 먹는 약으로 드릴 거예요. 먹는 약으로 바꾼다는 것은 통증조절이 잘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통증 조절되어 퇴원하고 나서 다시 아플 때는 응급실로 가야 하나요?

Nr.: 저희 병동은 병동으로 전화하셔서 자리만 있으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병동으로 바로 오시면 돼요.

Dr.: 환자분의 생일이 다가오시니깐... 자녀분들에게 생일잔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환자: (고개를 끄덕임)

둘째 딸: 불편해도 많이 먹어... 너무 매운 것을 많이 먹어서 걱정했거든요.

Nr.: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매운 것 드시고 싶으시다면 드시고 싶으실 때 드리세요. 환자분이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산책 하실 때 걸음걸이도 흔들림 없으시고 하는 것 보면 병동의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 좋으시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셔서 어머니가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운 것을 드시고 싶고 입에서 당기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니깐 드시는 것이 좋아요.

환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MSW: 가족들끼리 생신 때 계획도 이야기 나누시고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들 요구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 평가

●● 환자과 보호자가 그동안의 치료 과정과 환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치료 과정에서의 궁금증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함으로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또한 앞으로 치료계획을 위한 환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인지함으로 치료 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됨. 그러나 가족 면담 시 치료 계획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환자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자녀들이 환자에게 표현하고 싶은 내용 등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실 방문을 통해 가족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격려하고 가족 여행을 잘 계획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차○○ 환자 호스피스 · 완화의료병동 입원 경과 기록

2010.07.20 pm15:40-15:50 병실방문 - pt, pt 셋째 딸

S:(pt) “잠은 못 잤어요… 아직은 좀 낫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전에 복수 빼느라 자원봉사자분들한테 못 물어봤는데요… 여기 머리 자르는 것도 해주시나요? 머리를 자르고 싶어서요…”

A: 환자가 새로운 병실 환경과 다른 환자분들과의 서먹한 분위기로 인해 병실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원봉사실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를 자르고 싶은 욕구를 확인함.

2010.07.21 pm15:00-15:15 병실방문-pt, pt 셋째 딸

S:(pt) “아침에 족욕 마사지 받았어요…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마사지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통증은 없는데 잘 먹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고 잠을 못 자서 그게 좀 힘들어요… 애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하는데 병원이 편히 잘 수 있는 곳도 아니니까… 좀 미안하네요…”

(pt 셋째 딸) “진통제 때문에 그런지 잠을 푹 자지 못하고 자꾸 앉아계시더라고요… 간병인 사용 안하고 8시간 씩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 엄마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O: 환자의 세 딸이 8시간 씩 교대로 간병 중임.

A: 환자가 식사의 어려움과 수면 부족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병동 입원으로 자녀들이 교대로 간병하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 미안함의 감정을 표현함.

I: 환자가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해 신체적으로 힘이 없고 지치는 것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자녀들이 자신의 입원으로 간병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에 대한 미안함, 안쓰러움 감정들에 대해 경청하며 공감하였고 자녀들과 입원기간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 정서적 지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격려함.

2010.07.22 pm13:50-14:10 병실방문- pt, pt 둘째 딸

I: 환자가 다리 부종으로 이동의 어려움이 있어 미용 서비스 자원봉사자분이 호스피스 완화 병동에 오셔서 서비스 제공함.

S:(pt) “오늘 오전에 바깥어요… 머리도 자르고 목욕도 하고…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편하게 했어요…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오전에 좀 움직였더니 힘든 것 같아요…”

(pt 둘째 딸) “저희 엄마가 잘 못 먹으니까 걱정이예요… 오늘 구미에서 올라와서 병원에 입원한 것 처음 봤는데…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까 보니깐 이야기하면서 깜빡 깜빡 주무시고 잠도 깊게 못 주무시는데 약 때문에 그런건지 아님 병이 심각해졌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해요”

O: 오전에 미용, 목욕 서비스 받았으며 오후에 가족 면담 실시함.

A: 환자가 자원봉사자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 둘째 딸이 입원 후 환자가 이야기 도중 조는 것과 저녁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변화에 대해 염려와 안타까움의 감정을 표현함.

I: 환자가 오전에 제공받은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고마움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며 미술요법, 꽃꽂이 요법에 대해 정보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 격려함. 환자 둘째 딸이 환자의 증상변화로 인한 염려

와 안타까움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며 금일 오후에 진행되는 가족면담 시 궁금증에 대해 질문하도록 격려하여 환자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지함.

2010.07.26 pm15:35-15:55 병실방문-pt, pt셋째 딸

S:(pt 셋째 딸) “주말 동안에 너무 안 좋아지시고 식사도 못하셔서 1인실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낫아지셨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시니깐 무섭더라고요... 오늘은 뉴케어 반 정도 드셨는데 아직 힘드시니깐 말씀도 없으시고 누워만 계세요... 주말 보다는 조금 안정되어서 다행이에요...”

A: 가족들이 주말동안 환자의 갑작스런 통증 악화와 의식 저하로 인해 염려, 불안감,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환자가 점차 의식이 호전되고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 안도감을 표현함.

I: 환자의 갑작스런 증상변화로 인해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 염려감, 당혹감, 안도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들에 대해 경청하며 공감하였고 환자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 환자와의 대화를 격려함.

2010.07.28 am 10:00-10:15 정원- pt, pt 첫째 딸

S:(pt) “정원에 나오니깐 공기가 시원해서 좋아...”
(pt 첫째 딸)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하실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시원하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정원에 나왔으니깐 하늘도 보고 꽃도 보면 좋는데 아파서 한쪽으로만 누워계시니... 힘들어 하시니깐 이리 저리 옮기기도 겁나네요...”

O: 금일 병동 왁스청소로 환자들 정원에서 대기함.

A: 환자가 산책을 통해 기분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환자 첫째 딸이 산책 시 환자가 통증으로 움직임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 안타까움, 염려, 두려움의 감정을 표현함.

I: 환자가 하루에 한번은 산책하여 기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지 하였으며 환자 첫째 딸이 환자의 통증 악화로 인해 환자에게 느끼는 안타까움, 염려,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 경청, 공감하며 심리적, 정서적 지지 함.

2010.07.29 pm14:35-14:50 병실방문- pt, pt 셋째 딸

S:(pt 셋째 딸) “자녀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는데도 집안일이랑 일도 같이해야 해서 피로가 금방 쌓이는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 막내딸이 열 감기에 걸려서 지금 올케네 집에다 맡겨놓고 왔어요... 올케네 아이도 열 감기에 걸려서 같이 병원 갔다가 왔나봐요... 우리애가 7살이고 올케네 애는 3살이어서 손이 많이 가는데... 아까 딸이 전화 와서 엄마 찾고... 아프니깐 챙겨줘야 하는데 여기 있어야 해서 미안하죠... 여기 저기서 다들 고생이죠...”

O: 통증점수 1점(by chart review), 환자 4명의 자녀들이 교대로 간병중임. 셋째 딸 2명의 자녀 중 막내인 7살 딸이 열감기에 걸림.

A: 호스피스 병동의 특성 상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녀들 4명이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지만 일과 간병을 병행함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등의 신체적 어려움이 온 것으로 사료됨. 또한 환자 간병으로 인해 셋째 딸이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염려의 감정을 표현함.

I: 환자 간병 시 보호자의 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때 안정적인 간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 환자 목욕,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을 자원봉사분들과 함께 해결하여 신체적 어려움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지지함. 또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염

려의 감정에 대해 경청, 공감하였으며 심리적, 정서적 지지함.

에 맞추어 잔치 계획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지함.

2010.07.30 pm13:30-14:00 정원- pt, pt 첫째 딸

2010.08.02 pm13:30-14:00 병실 방문-pt, pt 첫째 딸

S:(pt) “아침에 목욕하고 싶었는데... 열이 나서 못해서 아쉬워 계속 몸을 씻지 못하니깐 찝찝한 것 같아...”

(pt 첫째 딸) “아침에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좀 기운이 생기신 것 같아요...엄마 환감이 8월1일이라 여기서 보내야 할지... 아님 나갈 수 있을지..., 여기보다는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힘이 되실지... 걱정이예요”

O: 체온 38℃(by chart review), 환자 고온으로 침상에서 부분 목욕만 가능함.

A: 환자가 몸을 씻기를 원하나 고열로 인해 목욕을 할 수 없었으며 추후 목욕 서비스 연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환자 첫째 딸이 환자 환감을 맞이하여 외부에서 환자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나 환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환갑잔치 계획 준비에 어려움을 느낌.

I: 환자 보호자가 환갑잔치 계획을 치료진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지하여 환자 상황에 대한 치료진의 판단

S:(pt) “어제 가족실에서 생일파티 했어요... 선생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애들이 휴가도 다 나한테 반납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내 옆에서 다들 간호하니깐 미안하죠... 다들 일도 있고 바쁜데...”

O: 환자 8월1일 환감을 맞이하여 병동 다목적실에서 파티함.

A: 환자가 환감을 맞이하여 병동에서 파티를 열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만족하나 자녀들이 자신의 입원으로 간병하며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 안타까움의 감정을 느낌.

I: 환자의 61번째 생일을 축하드렸으며 환자가 병원 입원으로 자녀들이 24시간 옆에서 간병하는 것과 휴가 때 놀러가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의 감정에 대해 공감, 경청하였으며 이러한 감정들을 자녀들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심리적, 정서적 지지함.

2010.08.07 am 11:30 임종하심